

-을/를 막론하고

~을/를 막론하고 — 가리지 않고, 예외 없이

여기서는 그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표현입니다. 막론하다는 ‘따지지 않다’라는 뜻으로, 그 범주를 상관없는 것으로 제쳐 둡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자음으로 끝남	을 막론하고	국적을 막론하고
모음으로 끝남	를 막론하고	남녀노소를 막론하고
짝을 이루는 명사	주로 쓰는 경우	지위 고하를 막론하고
조사 필수	을/를	이유 막론하고는 틀림
뒤 절	모두에게 적용	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
구어 표현	상관없이	나이에 상관없이

■ 언제 쓰나요

조사는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.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을,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를을 씁니다. 이 명사가 나타내는 것은 무시하는 구분입니다..

명사에만 쓰며, 그중에서도 대조가 이미 들어 있는 명사와 가장 많이 씁니다: 남녀노소, 지위 고하, 이유, 시간과 장소. 이런 짝 덕분에 빠짐없이 모두 아우르는 느낌이 납니다.

뒤 절에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 옵니다: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문체는 격식 있는 문어로, 안내문, 규정, 연설에서 씁니다. 대화에서는 상관없이나 아무나가 같은 역할을 쉽게 해 줍니다.

■ 예문

- 1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2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
- 3 이유를 막론하고 지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4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연락이 가능합니다.
- 5 국적을 막론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.
- 6 직접 만들든 사든 방법을 막론하고 품질이 우선입니다.

■ 비교

-에 상관없이
의미는 같지만 상관없이는 일상적인 표현입니다. 상관없이는 말에서 쓰고, 막론하고는 문장을 격식체로 만듭니다.
나이에 상관없이 (구어) /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(안내문)

-더라도
-더라도는 극단적인 한 경우를 가정하고, 막론하고는 범주 전체를 한꺼번에 제쳐 둡니다.
아무리 바쁘더라도 (아무리 바빠도) / 이유를 막론하고 (이유가 무엇이든)

치고
둘 다 예외 없음을 나타냅니다. 치고는 부정문으로 예외를 부정하는 방식이고, 막론하고는 구분 자체를 무시하는 방식입니다.
부모치고 안 하는 사람 없다. /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좋아한다.

■ 주의

- ✗ 이유 막론하고 지각은 안 됩니다.
○ 이유를 막론하고 지각은 안 됩니다.
조사 을/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조사가 없으면 막론하다와 문법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.
- ✗ 바쁜 것을 막론하고 참석해야 합니다.
○ 아무리 바쁘더라도 참석해야 합니다.
막론하고는 범주를 나타내는 명사와 씁니다. 바쁘다는 내용의 절에는 양보의 어미가 필요합니다.
- ✗ 야, 나이를 막론하고 다 와.
○ 야, 나이 상관없이 다 와.
막론하고는 안내문에서 쓰는 말입니다. 편한 대화에서는 상관없이가 자연스럽습니다.